



2022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중동부유럽 권역

2개월간의 터키 여행기

채윤미

우리(남편과 나)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터키를 여행하였다. 터키는 인근 유럽에 비해 시스템이나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한 편이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당황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터키 사람들의 다소 지나친 관심과 친절로 가끔은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많았다. 급격한 물가 폭등과 터키リラ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생활고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터키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처음 앙카라에 도착하여 5일 정도의 휴식과 차량 준비 등 카파도키아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독일에서 B 앱을 통하여 차량 렌트 예약을 미리 하였는데 막상 앙카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B 앱이 작동하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 결국 예약이 확인되지 않아 공항내 다른 영업소를 찾아 더 좋은 조건으로 렌트를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 터키에서는 B 앱을 이용할 수 없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숙소 예약의 경우 터키 밖에서는 터키 내 숙소 예약이 가능하지만, 터키 내에서는 터키 내 숙소 예약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괴레메와 위르기프에 숙소를 정하고 괴레메 지역과 로즈벨리, 파샤바 계곡, 우치히사르 등과 멀리는 소안르를 여행하였다. 때로는 거대한 기묘묘한 기암괴석들로 가득한 자연환경에 압도당하며 때로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오랜 역사적 주거지나 교회가 되었을 흔적들을 들여다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남아있는 프레스코화에 감탄하며 고대인들과 교류하는 느낌이 들어 더 오래 머물지 못하는 시간의 한계에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카파도키아 여행을 마치고 이스탄불 사비하 콕첸 공항에 도착한 날은 2021년 10월 29일이었다. 이 날은 터키가 무스타파 케말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터키공화국 수립을 선언한 날이다. 터키 최대의 국경일! 공항에서 택시로 이스탄불 구시가 중심 술탄아흐멧 지구에 있는 호텔로 이동해야 했다. 도시 전체는 교통지옥이었고 택시기사는 빠른 길로 가려는 것인지 수시로 경로를 바꿔 댔고 가는 곳마다 많은 차량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더구나 이스탄불 택시기사는 운전 내내 여러 번의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으며 유튜브 시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불안감과 함께 지치게 만들었다. 호텔에서 2km쯤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통행이 금지되었고 결국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택시비 350리라(당시 1리라에 약 140원이었고 우리가 터키를 떠날 쯤에는 1리라에 85원 정도로 가치가 떨어짐)를 요구하며 짐과 우리를 내려놓았다. 어처구니없던 상황이었고 많은 짐을 다 끌고 갈 수도 없어서 마침 기다리고 있던 포터를 반갑게 여기며 짐을 맡겼다. 그러나 포터에게 택시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한 후에야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혹독한 이스탄불 신고식이었다. 다시 이스탄불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월 29일만은 피해야 할 듯하다.

이스탄불은 코로나 상황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많은 관광객이 있었다. 물론 이스탄불 자체인구만도 1,500만 이상이라고 하니 그랜드바자르나 유명관광지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로 러시아나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았던 것 같다. 아시아인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우리가 지나다닐 때마다 “Where are you from?”을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들었다. 터키 사람들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에 조금은 힘에 부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스탄불은 매일매일 새로운 매력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거의 매일 지나다녔던 숄탄아흐멧 광장, 비록 지금은 이슬람사원으로 사용되어 기독교 성화는 휘장으로 가려 놓거나 관람 금지된 채 볼 수는 없었지만 1,5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빛바랜 붉은색의 아야소피아 성당, 주말이면 낚시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갈라타 다리와 다리아래에서 파는 즐겨 먹던 25리라짜리 고등어 케밥, 거의 매일 보스프루스 해협을 넘나드

는 페리를 타고 카디코이, 위스크다르, 멀리는 프린스아일랜드까지 다녀오며 맛았던 시원한 바닷바람과 바다냄새가 그리워진다.

20여 일간의 이스탄불 체류 후 터키를 두루 여행하였는데 이때도 렌트 차량을 이용하였다. 부르사, 이즈니크, 샤프란볼루, 아마스라, 에스키세히르, 파묵칼레, 안탈리아, 페티에, 이즈미르, 에페소스 등의 도시를 여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르사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이스탄불로 복귀하였는데 한때는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부르사의 중심에 숙박하며 풍요로운 재래시장과 실크로 유명세를 떨쳤던 코자한에서 스카프와 머플러 등을 구입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더불어 부르사 정통 이스칸다르 케밥을 먹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면 너무 사치스러울까? 터키를 두루두루 여행하며 많은 케밥을 맛보았지만 부르사의 이스칸다르 케밥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터키는 세계 3대 미식 국가이고 물가가 싸기도 해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많은 음식을 맛보았다. 아침 식사를 카흐발트라고 하는데 전통 빵인 에크멕이나 쉬미트, 각종 잼과 다양한 치즈류, 토마토와 오이, 다양한 올리브, 메네멘(토마토와 양파 달걀을 섞어 만든 요리로 작은 냄비 모양의 전통그릇에 조리되어 나옴), 괴즐레메, 터키 차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묵은 호텔들에서도 대체로 이런 메뉴들로 조식이 제공되었다.

점심이나 저녁메뉴로 선택한 케밥류는 가장 일반

적인 되네르, 피프테, 생선, 아다나, 이스켄데르, 그리고 치킨쉬시(꼬치), 램쉬시 등이었다. 나는 가지가 통째로 곁들여진 케밥을 특히 좋아했는데 패들리칸 케밥인지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케밥과 함께 항상 곁들여 즐겼던 새콤한 초반살라타(토마토, 양파, 오이를 잘게 썰은 샐러드)와 날이면 날마다 매끼니 마다 빠지지 않았던 아이란(요구르트), 렌틸콩 초르바(스프)... 그 이름을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디저트들. 터키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로쿰, 바클라바, 수틀라츠(라이스푸딩), 돈드르마, 카다이프, 그리고 터키쉬 커피. 이 정도가 우리가 경험한 디저트다. 이제는 젊지 않은 나이에기에 다양하게 여러 번 즐기기에 당도가 상상이상으로 높았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카이막은 아침조식에도 자주 나오고 슈퍼마켓에도 여러 종류가 판매되었던 거 같다.

이스탄불에서 도착당일 포터나 또 한 번은 구두닥이(떨어진 솔을 주워 주었더니 보답으로 구두를 닦아 준다고 응했다가 나중에 돌변하여 두 사람 분돈을 뜯겼던)에게 당한 일을 제외하면 터키 사람들은 친절하고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 깊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마을 개가 있었고 그들은 귀에 표식이 있었으며 목줄도 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다. 심지어 술탄아흐멧 광장 벤치 위에 낮잠을 자는 개들도 많았다. 처음엔 겁이 났지만 때론 밤길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물론 안탈리아와 샤프란볼루에서 인근에는 사나운 개도 있긴 했다. 관광객이 줄면서 먹을 것이 줄어드는 개들

이 관광객을 보면 즐기게 공격적으로 따라다니기도 했다. 터키 사람들은 이 밖에도 길고양이, 많은 새(주로 비둘기, 갈매기)에게도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었다.

두 달 간 터키여행을 하다 보니 어느덧 12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었고 차츰 크리스마스와 유럽 기독교 문화가 그리워질 즈음에 우리는 크로아티아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터키의 전역에 펼쳐진 고대 기독교의 흔적들을 주로 동굴교회의 형태들에서 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강력한 이슬람을 추구하고 있는지라 나의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그 문화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다.

터키를 여행하며 가장 부러운 건 그 넓은 땅덩어리에 정리되지 않은 채 박물관에 전시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예전의 모습 그대로 널려 있었던 고대 유적들이었다. 아직도 땅을 파면 계속 발굴된다는 고대의 흔적들이 나는 참 좋았다. 파묵칼레 인근 고대도시 유적지 라오디케아에서 고대인들과 가졌던 교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